

중한 번역 결속구조 분석: 중국어 논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최승혁(중앙대학교)

이정순(중앙대학교)

1. 서론

우리는 평소에 텍스트(Text)라는 말을 쉽게 접한다. 텍스트는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비문자적 수단(format)과 구별하는 문자적 수단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러한 수단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을 가리키기도 한다. 텍스트는 라틴어로 직물, 조직(Gewebe)을 뜻하는데, 이는 ‘직물 등을’ 짜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동사에서 파생된 ‘textere’에서 기원했다(고영근, 2022, p. 5). 비록 텍스트 개념에 관한 정의는 분야별로 상이하지만, 그 어원으로부터 텍스트가 직물처럼 유기적으로 엮인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Beaugrande와 Dressler(1981)에 따르면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 단위 간의 고립을 피하고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드는 다양한 언어적 장치가 있고, 이를 통해 텍스트는 본연의 특성, 즉 텍스트성(textuality)을 갖는다. 텍스트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곱 가지가 있는데¹⁾ 이중 언어 표층에서 텍스트의 유

1) Beaugrande와 Dressler(1981)에서 제시한 일곱 가지 기준은 결속구조(cohesion), 응집성(coherence),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정보성(informativity), 상황성(situational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다.

기성 확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결속구조(cohesion)²⁾를 기준으로 한다. 결속구조는 하나의 표층 관계로서 텍스트의 다양한 부분을 연결하는 어휘적, 문법적 및 기타 관계들의 망이다(Baker, 2018[2005], pp. 259-260).

필자는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번역 수행 과정에서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 간의 의미를 정확히 연결하지 못하고 분절하는 문제를 자주 발견했다. 미시적 차원에서 출발언어 텍스트 표층에 드러난 결속장치(cohesion device)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결속장치를 적절히 추가하여 도착언어의 언어적 규범이나 관습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즉, 하나의 단락 내부에서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각각의 소주제를 담고 있는 개별 단락 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하나의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나타났다. 즉, 텍스트의 전후 맥락을 유기적으로 매끄럽게 연결하지 못하고 분절하면서 ‘고립된 문장의 나열’(이상원, 2003, p. 145)만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번역대학원 번역 수업에서 텍스트 차원의 결속구조를 교육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내에서 발표된 결속구조와 관련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 결속성과 한국어 글쓰기(김진웅과 주민재, 2013; 서중훈, 2017; 이재승, 2003) (2) 결속성과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활용 능력(김선영, 2008; 김성경, 2009; 김혜정, 2010) (3) 결속성과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이다. 첫째와 둘째 분류는 글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로 각각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작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세 번째 분류는 번역에 관한 연구로 영어, 일어 등 여러 외국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차이에 따른 결속기제를 비교하거나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결속성 오류를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본고의 분석은 세 번째 분류에 속하며 이에 초점을 맞추어 중한 번역과 결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백수진(2003)은 Beaugrande와 Dressler(1981)가 제시한 텍스트성(textuality)을 결정하는 특징 7가지에 따라 한중, 중한 번역에서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2) cohesion은 응결성, 결속성, 결속구조 등 다양한 술어로 사용된다. 본고는 결속구조로 통일해 사용한다.

지 설명하면서, Halliday와 Hasan(1976)의 이론에 따라 출발언어 정보를 도착언어 구조에 맞추어 결속구조를 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동숙(2005)은 한중일 3국 공동 역사 부교재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접속표지 대응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두 언어의 결속적 접속표지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제공하였다. 장염옥(2013)은 한중 신문 보도기사를 중심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Halliday와 Hasan(1976), Beaugrande와 Dressler(1981)의 이론을 토대로 결속구조를 분석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Van Dijk(1988)의 텍스트 거시규칙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 신문 보도기사의 텍스트 거시구조를 분석했다. 특히, 신문기사의 거시구조가 Van Dijk(1988)의 주장처럼 복잡하고 다층적이기보다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한중 신문기사에 적합한 거시구조를 도출해냄으로써 해당 유형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주희민(2013)은 한중 연설문 텍스트의 결속장치를 비교해 통계를 내었으나 유의미한 결론은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후 주희민과 장흥리(2014)에서 한중 연설문에 사용된 결속장치 중 생략을 중심으로 이전의 연구를 심화시켰고, 생략 기제는 문장의 의미 경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중 번역에서 그 경계에 따라 주어를 적절하게 첨가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박은숙(2021)은 張敏(2005)의 『中韩翻译教程』에 실린 정보제공 유형의 신문 기사 텍스트 중한 번역을 발췌해 결속구조를 분석하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적 공통점 위에 번역학 관점에서 결속구조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고는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이 텍스트 표층의 결속구조 파악을 통해 번역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연구 목적을 세우고, 먼저 중국어 논설 텍스트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텍스트로서 보이는 특징을 거시적으로 이해한 다음, Halliday와 Hasan(1976)의 결속이론에 따라 결속구조 사용 양상을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번역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논설 텍스트의 구조

텍스트는 언어 행위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텍스트 종류별로 특유의 구성원칙과 생성조건이 있다. 신문이 갖는 여러 기능과 텍스트 종류 가운데 논평은 현실 문제에 관한 의견, 판단, 비판 등을 수행하며 논설을 포함한다 (김양훈, 2007, pp. 24-25). 논설 역시 특유의 텍스트 구조를 갖는다. 김양훈 (2007)은 독일 신문에서 보이는 논설 텍스트의 구조와 텍스트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논설 텍스트의 구성과 특징

논설 텍스트	표제	- 텍스트 개시 부분, 독자의 관심과 주의 환기 - 결론을 미리 제시, 짧고 간결한 문장 - 축소된 문장 사용, 독창적 어휘의 선택이나 은유적 어법	
	본 문	서론	- 텍스트 개시 부분, 텍스트 수용에 중요한 기능 - 논설의 대상 및 상황 소개 등 기본 설명과 문제 제기
		본론	- 텍스트의 핵심 구성으로 논증적 텍스트 구조가 지배적 - 주장, 평가, 논거 등 수행
		결론	- 전체 논증의 중점사항 강조 - 서론에서 제시한 요소의 종합적 파악

<표 1>과 같이 논설 텍스트는 거시적으로 표제-서론-본론-결론의 논증적 구조로 이루어지며 단계마다 특징을 갖는다. 표제는 보통 짧은 구 또는 문장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각 단계는 단수 혹은 복수의 단락으로 이루어진다. 논설 텍스트는 독자를 설득해야 하는 성격상 주장과 그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는데, 미시적으로 보면 주장을 강화해 설득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락 내부 혹은 단락과 단락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다. 대표적 인 것이 결속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설 텍스트의 구성과 특징을 중국어 논설 텍스트에 적용해 보

자. 아래 논설은 코로나 시기에 각 경제(Gig Economy)가 활성화하면서 배달업 등 여러 업계에서 초단기 노동 계약이 성행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관련 정책을 통해 ‘긱 워커(Gig worker)’라는 새로운 노동자 그룹과 관련한 노동의 형태, 노무 관계, 노동권 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논증하고 있다. 표제를 제외하고 논설은 아래와 같이 6개 단락으로 구성된다.3)

표 2
중국어 논설 텍스트의 구성

표제	①发展零工经济关键是保障零工权益。 (각 경제 발전의 핵심은 각 워커의 권익 보장이다)
본론	서론 ②日前,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民政部等5部门印发《关于加强零工市场建设 完善求职招聘服务的意见》, (현재,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민정부 등 5개 부처에서 ‘긱 경제 시장 조성 강화와 구인구직서비스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③数据显示, 中国灵活就业从业人员规模达2亿人左右, 其中相当一部分就是“零工经济”从业者。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고용 유연성이 높은 직업 종사자는 2억 명 정도로 그중 상당 부분은 ‘긱 경제’ 종사자이다) ④此外, “零工”频遇劳动争议, 仍是一种普遍现象。 (또한 ‘긱 워커’가 노동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비밀비재하다)
	본론 ⑤而现实情况却是, 目前“零工”与平台之间, 基本上是劳务关系。 (하지만 실제로는 ‘긱 워커’와 플랫폼의 관계를 노무관계로 본다) ⑥针对在“互联网+”新经济形态发展中, 成长起来的“零工”劳动群体, 相关部门在鼓励创新的同时, (‘인터넷+’라는 새로운 경제모델의 발전과 함께 증가한 ‘긱 워커’ 라는 노동자에 대해 관련 부처가 혁신을 독려하는 한편)
	결론 ⑦换言之, 发展“零工经济”, 关键是保障“零工”权益。 (결론적으로 ‘긱 경제’ 발전의 핵심은 ‘긱 워커’의 권리 보장에 있다)

3) 해당 논설의 전문을 모두 실을 수 없기도 하고 첫 문장만으로도 해당 논설의 구조와 주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각 단락의 첫 문장만 추출하였다.

①은 논설의 표제이다. ‘零工经济’(Gig Economy, 이하 깃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코로나 이후의 사회적 변화를 개괄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환기한다. 논설자는 이와 관련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표제에서 짧고 간결하게 밝혔다.

②, ③, ④는 서론에 해당한다. 서론은 텍스트 개시 부분으로 논설할 대상에 대한 상황을 소개하고 문제를 제기해 독자가 텍스트를 수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먼저 ②는 중국 정부가 깃 경제와 관련한 ‘의견(意見)’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텍스트를 시작하였다. ③은 정부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현재 상황을 소개하고, ④는 깃 경제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깃 워커와 플랫폼의 노무 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한다.

⑤, ⑥은 본론으로 논설자의 주장, 평가, 논거 등이 드러난다. ⑤는 깃 워커가 플랫폼의 횡포 속에 노동관계에 있어서 약자로서의 불합리한 위치에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⑥은 새롭게 등장한 깃 워커의 권리 보장에 대한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한다.

⑦은 결론으로 표제에서 제시한 주장을 강조하고 전체 논증을 요약하며 마무리한다.

2.2 결속구조

결속구조(cohesion)는 텍스트 표층에서 여러 언어적 성분들이 어휘적, 문법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상호 해석에 의존성을 부여하는 관계를 말한다. Halliday와 Hasan(1976)은 결속구조를 문법 층위와 어휘 층위로 구분하고 각 층위에서 사용되는 결속장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결속구조 층위 및 결속장치(Halliday와 Hasan(1976))

결속구조 층위	결속장치
문법	지시(reference)
	생략(ellipsis)
	대용(substitution)
	접속(conjunction)

어휘	반복(repetition)
	연어(collocation)

이 이론은 개별 언어에 따라 세분화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고 역시 상기 결속장치를 중심으로 번역문의 결속구조를 분석할 것이므로 각 장치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상술한다.⁴⁾

지시(reference)란 텍스트 내에서 언어적 표현 간에 성립하는 의미적 일치 관계로, 선행하는 이름이나 명칭을 대명사로 지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예시 1>

원문: “黄奋, 你记得十六年五月我们在京汉线上作战的情形吗? 那时, 我们四军十一军死伤了两万多……。” --矛盾: 《子夜》

번역문: “황편, 16년 5월에 우리가 경한선에서 작전할 때 기억나? 그때 우리 4군 11군에서 2만 명 넘게 죽었잖아……”

<예시 1>에서 후행 문장의 대명사 ‘那’는 선행 문장의 ‘十六年五月’을 지시하며 의미적 일치 관계를 나타낸다. 지시 방식에는 언어적 표지를 통해 텍스트 표층에 명시할 수 있고, 언어적 표지가 아닌 실제 세계에 대한 지식을 통해 지시 관계를 이해할 수도 있다. 이를 공지시(co-reference)라고 한다. 번역 과정에서 지시는 출발언어와 도착언어, 혹은 텍스트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영어는 대명사를 이용한 지시를 선호하는 반면, 중국어의 경우 영어와 달리 참여자 주어를 먼저 언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어를 생략하는 방식을 선호한다(Baker, 2005, pp. 260-267).

대용(substitution)이란 어떤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대신 표현하는 문법적 관계를 말한다(Baker, 2005, p. 269).

<예시 2>

원문: 瞧那晚霞。我没见过比这更红的了。只要看晚霞就可以知道天气了。

4) 이론적 배경 중 2.2에서 제시한 예시는 胡壮麟(1994)에서 인용하였고, 예시의 번역은 필자의 번역임을 밝힌다.

번역문: 저 저녁노을을 봐요. 저는 이보다 더 붉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녁노을을 보면 날씨를 알 수 있죠.

<예시 2>에서 밑줄 친 ‘的’는 앞에 출현한 ‘晚霞’를 대신해 사용하였고, 동일한 명사 어휘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결속성을 높여 준다. 영어는 대용 표현이 분명한 언어로 대표적으로 one(명사 대체), do(동사 대체), so(절 대체) 등의 대용 수단이 있다. 중국어의 경우, 的(명사 대체), 来(동사 대체), 不然/要不然(절 대체) 등의 대용 수단이 있다(胡壮麟, 1994, pp. 71-74). 朱德熙(1961, 1966)는 중국어 구조조사 ‘的’가 영어 ‘one’의 기능과 유사하여 [중국어 형용사 + 的]가 [영어 형용사 + one]에 상당한다고 보았다(胡壮麟, 1994, p. 72에서 인용함).

생략(ellipsis)은 어떤 구조에 출현하지 않은 어휘를 담화의 다른 절이나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생략은 문법적 층위의 생략(Wales 1989)으로 문법적 구조를 통해 생략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Baker, 2005, p. 269).

<예시 3>

원문: “条件也讲定了么?”

“讲定了。三十万!” --矛盾：《子夜》

번역문: “조건을 정했나요?”

“讲정했어요. 30만으로요!”

<예시 3>에서는 ‘조건’을 정했냐는 질문에 대해 ‘조건’이라는 명사를 생략하고 30만이라는 결과만을 부각시켜 대답하고 있다. 이는 해당 명사를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작품 속 화자와 청자 또는 이를 읽는 독자가 생략된 요소를 복원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Halliday(1985)는 생략이 명사 층위(nominal), 동사 층위(verbal), 절 층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생략은 텍스트의 긴밀성을 높이고 효율적 의사소통을 돕는 전략으로 신정보를 더욱 부각해 독자가 효율적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과도한 생략은 텍스트의 안정성이나 논리의 명확성을 저해할 수 있어 다른 결속장치에 비해 사용상의 제약이 존재한다(장염옥, 2013, p. 41).

접속(conjunction)은 문장과 문장, 담화와 담화를 이어주는 대표적인 장치로서 앞의 내용에 첨가, 보충, 반대, 이유 등으로 결속시키는 기능을 한다(박영순, 2004, p. 88). 접속은 대부분 접속사를 통해 언어 표층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며 텍스트 내부의 논리 관계를 드러낸다.

<예시 4>

원문: “要镇静! 即使失败, 也得镇静!” 可是事实上他简直镇静不下来了! --矛盾: 《子夜》

번역문: “침착해! 실패하더라도 침착해야 해!” 하지만 사실 그도 침착할 수 없었다!

<예시 5>

원문: “我就看不起资产阶级的黄金!”

“因为资产阶级的黄金也看不起你的新诗!” --矛盾: 《子夜》

번역문: “나는 부르주아의 황금을 경멸해!”

“왜냐하면 부르주아의 황금도 당신의 신작 시를 경멸하기 때문이야!”

<예시 4>는 전환 의미의 접속으로 ‘即使 A, 也 B’ 형식을 취했다. 전환은 선행 문장에서 예상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 후행 문장에 나타나는 의미적 관계이다. 중국어에서 전환 의미 접속은 ‘即使’, ‘尽管’, ‘虽然’ 등 접속사(连词)와 ‘但是’, ‘可是’, ‘也’ 등 접속사(连词) 또는 부사가 쌍을 이루는 구조적 형식을 자주 취한다. <예시 4>는 성패를 앞에 둔 중요한 순간이라 침착하기 어렵지만 침착해야 한다고 말하는 일반적인 예상과 상반되는 의미를 전환 접속의 결속장치를 통해 표현하였다. <예시 5>는 인과 의미의 접속이다. 인과는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라는 두 성분을 긴밀하게 결합한다. 중국어는 보통 ‘因为 A, 所以 B’의 형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접속하지만, ‘因为’ 또는 ‘所以’ 둘 중 하나만 사용해도 인과관계 접속에 영향이 없으면 <예시 5>처럼 간결한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접속의 결속장치는 의미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위 예시에서는 전환, 인과 두 가지 예시만 들었지만, 화용적인 이유로 접속은 언어마다 접속빈도나 선호 종류가 다르다(Baker, 2005, p. 277). 이뿐 아니라 접속의 결속장치 분류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상이하다. 장염옥(2013)은 Halliday와

Hasan(1976), Beaugrande와 Dressler(1981)의 접속 분류를 토대로 중국어 텍스트의 접속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한 廖秋忠(1986)의 의견을 종합해 논리적인 의미에 따라 첨가, 전환, 인과, 시간으로 접속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중국어 신문 텍스트 분석을 위한 것으로, 본고의 분석 대상에 합치한다고 판단되므로 접속의 결속장치 분석에서 이 분류 방식을 따른다.

첨가는 선행 내용 뒤에 새로운 정보를 보충해 문장 전체의 의미를 보완하는 것이다. 전환은 예상과 상반되는 내용이 출현하는 것이다. 인과는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이 구체적인 결과, 원인, 목적의 관계를 갖는 것이고, 시간은 사건 발전에 대해 시간적 선후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의 접속 결속장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중국어 접속 결속장치 예시5)

분류	중국어
첨가	而且, 还有, 另外, 以及, 或者, 此外, 例如 등
전환	反而, 不过, 即使, 然而, 但是 등
인과	为了, 结果, 原来, 否则, 因此, 为此, 因为 등
시간	以后, 首先, 其次, 与此同时, 最后, 然后 등

어휘적 결속(lexical cohesion)은 한 어휘 항목이 이전 항목의 의미를 상기하도록 만드는 모든 경우를 말하며, Halliday와 Hasan(1976)은 이를 반복(reiteration)과 연어(collocation)로 분류하였다(Baker, 2005, pp. 290-291).

반복은 이미 출현한 선행 항목, 동의어, 상위어 등과 같이 어휘 항목을 반복하는 것이다.

<예시 6>

원문: “佩珊！佩珊！我心里难过极了！想到一个人会死，而且会突然的就死，我真是难过极了！我不肯死！我一定不能死！”

“可是我们总有一天要死。”

5) 장염옥(2013, pp. 44-46)

“不能!” 我一定不能死! 佩珊, 佩珊!” --茅盾: 《子夜》

번역문: “페이샨! 페이샨! 나 너무 괴로워!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괴로워! 난 죽을 수 없어, 절대로 죽지 않겠어!”

“하지만 우린 언젠가 죽게 되어 있어.”

“안돼! 난 안 죽을 거야! 페이샨, 페이샨!”

<예시 6>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死’를 6번이나 반복해 사용했다. 이것만 보아도 화자가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휘 자체에는 접속이나 지시와 같은 결속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같은 어휘를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텍스트의 화제를 결속하는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텍스트에서도 개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어휘 반복을 자주 사용한다(胡壯麟, 1994, p. 116).

언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문장성분 간의 호응을 떠올리고, 특히 중국어는 이러한 호응을 엄격하게 지키는 언어이기 때문에 서술어와 목적어 호응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Halliday와 Hasan(1976)이 말한 언어는 어휘 항목 간의 연계성에 방점이 있다. 여기에는 공기(共現) 뿐 아니라 소년/소녀와 같은 반의어, 요일과 시간과 같은 순서가 있는 어휘, 신체/팔과 같은 전체와 부분, 상위어와 하위어 등과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상호 관계를 이루는 것을 포함한다.

<예시 7>

- a. 小鱼:大鱼(작은 물고기:큰 물고기), 次等货:上等货(하품:상품)
- b. 死:断气(죽음:숨이 끊김), 打仗:开火(전쟁:발포)
- c. 花:玫瑰(꽃:장미), 音乐:铜鼓声(음악:북소리)
- d. 桥:钢架(교량:철근 골조), 手:中指(손:중지)

<예시 7>은 다양한 언어 관계를 보여준다. (7a)는 반의, (7b)는 유의, (7c)는 상위와 하위, (7d)는 전체와 부분이다. 이러한 언어는 다양한 의미 관계를 통해 텍스트의 주제를 성립시키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지금까지 중국어 예시를 통해 Halliday와 Hasan(1976)에서 제시한 결속장치를 이해하였다. 이러한 결속장치가 적재적소에 사용된다면 텍스트라는 직

물을 촘촘하고 매끄럽게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언어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속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번역문이 고립된 나열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텍스트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며, 교육적 필요성과 가치 또한 매우 높다.

3. 분석 대상

본고는 2022년 12월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한중 전공에서 실시한 졸업 시험 중 BA 전문번역 문제로 출제된 중국어 논설 텍스트의 학생 답안을 분석하였다. 졸업 시험으로 출제된 중국어 논설 텍스트는 2022년 7월 13일에 ‘人民融媒体’에 실린 ‘发展零工经济关键是保障零工权益’ 제하의 논설로 총 815자, 17문장⁶⁾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대상을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의 시험 답안과 중국어 논설 텍스트로 선정할 이유는 아래와 같다.

먼저,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은 번역 교육 측면에서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다.

첫째, 학습 단계의 동질성이다.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은 번역 기제를 인지하고 수용하기 가장 좋은 단계에 있다. 이들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예비번역사로서 번역에 나타나는 오류를 줄이고 보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번역하고자 하는 공통의 학습 목표를 갖는다. 둘째, 학습 내용과 번역 훈련의 동질성이다. 통번역대학원의 개별 학생들은 외국어 학습 기간, 번역 경험, 해외 체류 기간, 외국어 구사 능력 등 어느 정도의 차별적 요소는 제거하기 어렵다. 하지만 본고의 분석 대상이 수업 과제가 아니라 졸업 시험 답

6) 문장(句子)은 어법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정의와 분류 방법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朱德熙(2008[1982], p. 215)에 따르면 앞뒤 휴지(pause)가 있고 동시에 일정 어조를 띠는 상대적으로 온전한 의미를 갖춘 언어형식을 문장으로 보았다. 복문(複句)의 경우, S1, S2,...Sn. 처럼 둘 이상의 단문(單句)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각각의 S1, S2는 단문이고 문장이 아니며 절(分句)로 간주하기 때문에 문장의 수는 n개가 아니라 한 개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마침표를 기준으로 문장을 구분하였다.

안이므로 교육생의 개별 속성보다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동질성에 더욱 주목한다. 2년에 걸친 통번역대학원 교육을 똑같이 이수한 학습자의 텍스트 표층구조 파악 및 구현 양태를 살펴봄으로써 번역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 것이다. 셋째, 졸업 시험이 갖는 특수성이다. 학생들은 졸업 시험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제한된 시간 안에 발휘해야 하고, 시험은 이를 확인하는 장치이다. 학생들이 긴장된 분위기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답안 분석을 통해 번역에 관한 학생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번역 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어 논설 텍스트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문학작품 텍스트보다 비문학작품 텍스트에서 논리적 구조, 즉 글의 짜임새가 텍스트의 표층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중국어는 문맥 차원에서 사유를 통해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언어 성분을 비명시화 하는 의합법(意合法)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논설 텍스트의 경우 명확한 주장을 위해 의합법을 최대한 배제한다. 이러한 텍스트의 번역 시 번역자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줄어들고 출발언어 텍스트의 논리 구조가 도착언어 텍스트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면 번역자의 결속장치 사용 양상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2022년 12월 졸업 시험에는 총 23명이 응시했다. 연구에 사용할 데이터 확보를 위해 23명의 학생에게 답안 사용 동의서를 메일로 요청했고, 총 7명이 사용에 동의하였다.

4. 분석 결과

중국어 논설 텍스트 표층의 문법적 결속장치와 어휘적 결속장치의 출현 빈도 통계를 산출하고 비판적으로 비교, 대조하였다. Baker(2005)에서 제시한 5가지 결속장치 중 문법 층위의 ‘대응’, 어휘 층위의 ‘연어’, <표 3>에서 제시한 중국어 접속의 결속장치 중 ‘시간’은 중국어 논설 텍스트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1 문법 층위

4.1.1 지시

중국어 논설 텍스트는 대명사 ‘他们(1회)’, ‘其(3회)’, ‘这(2회)’를 총 6회 사용하여 선행 문장과의 결속을 시도하였다. 출발언어 텍스트의 결속장치를 도착언어 텍스트에 그대로 사용한 경우 ‘사용’, 지시의 결속장치로 사용한 대명사를 해당 어휘로 대체한 경우 ‘명시’, 출발언어 텍스트에는 없지만 도착언어 텍스트에 사용된 지시의 결속장치는 ‘추가’, 출발언어 텍스트의 결속장치를 도착언어 텍스트에서 빠뜨렸을 경우 ‘누락’으로 보았다.

표 5
결속장치 ‘지시’의 사용 양상

분류	A	B	C	D	E	F	G
사용	2	3	4	3	4	2	4
명시	2	2	1	1	1	1	1
추가	3	3	2	1	2	1	5
누락	2	1	1	2	1	3	1

<표 5>를 보면 학생이 번역 과정에서 임의로 ‘추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시 결속의 사용, 명시, 누락에 있어 특정할 만한 사용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번역자마다 출발언어 텍스트에 사용된 지시 결속장치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것이 지칭하는 어휘로 명시화하는 전략도 간혹 사용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번역자가 도착언어 텍스트에 임의로 지시 결속을 추가하는 것이다. 학생별로 사용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지시의 결속장치를 추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아래 예시를 보자.

<예시 8>

원문: 针对在“互联网+”新经济形态发展中, 成长起来的“零工”劳动群体, 相关部门在鼓励创新的同时, 还应出台相应的政策与保障制度, 引导企业规范用工、促进行业健康发展。比如, 可以因群体施策, 实行分类认定管理。对于依靠脑力劳动和特殊技能获得较高收入、更愿意以自由职业身份存在的人群和行业, 可以参照民事合作关系予以认定。

번역문: ‘인터넷+’라는 새로운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에 따라 성장하는
 직위커 노동군에 대해서 관련 부처는 혁신을 장려함과 동시에 이에 상
 응하는 정책과 보장 제도를 마련해 기업이 정당한 고용과, 업계의 건강
 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노동 집단의 특징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그 예이다. 정신 노동과 특수 기술을 통해 고수
 입을 벌어들이고, 프리랜서를 원하는 사람들 및 업계의 경우 민사 협력
 관계를 참조해서 이들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학생 G의 번역문)

신문 사설과 같이 특정 주장이 담겨 있는 글은 정보의 명확성보다는 주
 장과 근거의 의미 결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시어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
 다. 앞뒤에 제시된 내용을 ‘이’나 ‘그’로 받으면 텍스트를 의미적으로 결속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전영옥, 2014, pp. 169-176). <예시 8>의 원문에는
 ‘这’, ‘那’, ‘其’ 등의 지시 결속장치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학생 G는
 도착언어로 번역하면서 ‘이’, ‘그’ 등 지시 결속을 4번이나 사용했다. 출발언
 어 텍스트에 없는 지시 결속을 통해 도착언어 텍스트의 의미적 결속을 강화
 하고 독자의 이해를 높이려는 전략에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생 G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지시 결속을 훨씬 많이 사용했으
 며 모두 상맥지시였다. 전영옥(2014)에 따르면 맥락 지시의 방향에 따라 선
 행어가 먼저 나오는 것을 순행 지시, 선행어가 뒤에 나오는 것을 역행 지시
 로 구분하고, 신문의 기사와 사설에서는 역행은 나타나지 않고 순행의 방향
 만 나타난다(p. 177). 상맥지시의 과도한 사용은 오히려 의미를 명확성을 떨
 어뜨릴 수 있다. 번역문의 첫 번째 ‘이에’는 선행하는 ‘새로운 경제’를 지시
 하여 독자가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 짧은 서술 안에서 불필요하다. 그
 리고 두 번째 ‘이에’는 ‘새로운 경제’를 지시하는지 ‘정부의 혁신과 장려’를
 가리키는지 헷갈릴 뿐만 아니라 텍스트 내에서 첫 번째 ‘이에’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 독자의 이해를 방해한다.

<예시 9>

원문: 如果是劳动关系, 由于“强资弱劳”的天然属性, 法律会偏重于保
 护劳动者一方, 用人单位须为劳动者承担安全、社保等种种责任, 其工
 资工时等制度, 也严格受劳动法律法规约束。但如果是劳务关系, 则意
 味着双方是平等的民事合作关系, 其权利难以得到保障。

번역문: 만약 노사 관계로 본다면, ‘갑’ 측이 임금을 주고 ‘을’ 측이 노동을 한다는 당연한 속성을 지니게 되며, 법률 측면에서도 근로자 보호에 더 주목해 고용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 및 사회 보장 등 다양한 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근로 시간과 임금 등과 관련한 제도 또한 노동 법률 및 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구속된다. 그러나 만약 서비스 관계로 본다면 양측이 평등한 민사 협력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학생 C의 번역)

<예시 9>의 원문은 각 워커와 이들을 임시 또는 단발성으로 고용한 플랫폼 간의 관계를 노동관계와 노무관계 중 어느 쪽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관련 법률이 각 워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비교하여 설명하는 문장이다. 여기에 대명사 ‘其’가 2회 등장하였고 모두 각 워커를 지시한다. 학생 C는 첫 번째 ‘其’를 ‘아울러’라는 부사로 잘못 번역하였다. 두 번째 ‘其’는 ‘그’라는 대명사로 일대일 번역을 하였는데, ‘그’가 선행 문장의 어떤 부분을 지시하는지 모호하다. 텍스트상에서 각 워커를 의미하는 원문의 ‘劳动者’와 ‘其’의 물리적 거리가 있으므로 원문의 지시 결속을 번역문에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해당 어휘를 반복하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4.1.2 생략

분석 대상 텍스트에서 사용한 생략 결속은 모두 문두의 주어가 생략된 경우로 총 6회 사용되었다. 출발언어 텍스트에서 생략한 주어를 도착언어 텍스트에서 동일하게 생략한 경우 ‘사용’, 이와 반대로 도착언어 텍스트에서 다시 해당 어휘로 명시화한 경우 ‘복원’, 복원하였으나 오류를 범한 경우 ‘오류’로 구분하였다.

표 6
결속장치 ‘생략’의 사용 양상

분류	A	B	C	D	E	F	G
사용	6	6	6	6	4	6	6
복원	0	0	0	0	0	0	0
오류	0	0	0	0	2	0	0

<표 6>을 보면 학생 E를 제외하고 6명 모두 출발언어 텍스트의 생략 결속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예시 10>

원문: 针对在“互联网+”新经济形态发展中, 成长起来的“零工”劳动群体, 相关部门在鼓励创新的同时, 还应出台相应的政策与保障制度, 引导企业规范用工、促进行业健康发展。比如, (∅)可以因群体施策, 实行分类认定管理。对于依靠脑力劳动...(생략)..., (∅)可以参照民事合作关系予以认定; 而对于主要依靠体力劳动...(생략)..., (∅)应加强正面引导, 杜绝企业借民事合作之名, 行规避劳动关系法律适用之实。

번역문: ‘인터넷+’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 성장 과정에서 부상하기 시작한 초단기 노동자라는 새로운 노동자 집단은 관련 부처가 혁신을 장려해야 함과 동시에 상응하는 정책과 보장 제도를 실시하여 기업이 합법적으로 이들을 고용하고 업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가 직업군이나 집단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고 관련 승인 제도를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지식 노동...(생략)...의 경우, (∅)민사상 협력 관계를 참고하여 노무 관계를 승인할 수 있다. 배달원 등 주로 육체노동이...(생략)...협상하기 어려우므로 사측이 민사상 협력관계를 방패로 노동법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 (학생 A의 번역)

박청희(2013)에 따르면 생략이 형태적·의미적으로 생략된 요소를 쉽게 복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최소한의 노력으로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목표언어 사용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 생략의 원인은 언어 내적과 언어 외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 내적에 의한 생략은 언어 정보의 생략이고, 언어 외적에 의한 생략은 상황 정보의 생략이다. 이중 언어 정보에 의한 생략은 ‘동일성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문장 내에서 혹은 이어진 문장에서 반복되는 성분이 있으면 생략된다고 보았다(p. 20). 동일성 조건이란 생략되는 요소는 문법적 기능이 동일해야 한다는 원리로 형태적 또는 지시적으로 동일한 두 요소 중의 한 항목을 생략하려면, 두 요소는 동일한 성분으로 기능해야 한다. 문법적 기능이 다른 성분은 생략될 수 없다는 원리는 단문이나 접속문 내에 서는 거의 예외가 없이 지켜진다(p. 213).

<예시 10>의 원문은 정부 유관부처에서 새롭게 등장한 각 위커의 노동

특성에 따라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구분해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동사 ‘可以’, ‘应该’ 앞에 주어(가 총 3회 생략되었는데), 생략의 동일성 조건⁸⁾에 따르면 이들 두 조동사 앞에 생략된 주어는 선행 문장의 ‘相关部门(유관부처)’이다. 학생 A는 원문에서 생략된 성분을 번역문에서도 똑같이 생략하였다. 첫 번째 생략에서는 ‘정책 실시’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주체를 선행 문장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생략으로 갈수록 텍스트상에서 주어와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뿐더러 ‘노무관계 승인’, ‘강력한 보호’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가독성이 크게 떨어졌다. 생략은 언어의 경제성 추구의 결과로 사용되는 결속장치이지만 과도한 생략은 오히려 텍스트의 논리적 명확성을 해칠 수 있다.

4.1.3 접속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 언급된 ‘접속’은 첨가, 전환, 인과, 시간을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다. 여기서 첨가는 병렬, 선택, 보충 등을, 전환은 화제 전환, 역접, 양보 등을, 인과는 결과, 추론, 목적, 조건, 가정 등을, 시간은 시간 표시, 순서 표시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이러한 광의적 차원의 분류는 중국어의 접속 결속장치를 분석하는 데 매우 타당하다. 중국어 논설 텍스트에 등장하는 ‘对于’의 경우 주제부를 특정한 화제로 제한하는 일종의 전환 기능을 하는데, 의미의 전환만을 전환으로 본다면 분석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 분석하는 중국어 논설 텍스트에도 ‘对于’와 ‘如果’가 사

-
- 7) 중국 신문보도 텍스트에서는 주어 생략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한 단락에서 똑같은 화제에 대해서 진술할 때, 한 번 제시된 주어는 뒤에서는 계속 생략된다. 생략을 사용하면 선행, 후행 문장 간의 구조가 긴밀해지며, 중국어는 형태표지가 아닌 사유 논리적 관계에 의해 의미가 생성되는 ‘의합(意合, hypotaxis)’의 언어적 특징을 갖기 때문에 생략이 한국어보다 자주 일어난다(장염옥, 2013, pp. 42-43).
- 8) 중국어의 주어 생략은 “承前省略”, “蒙后省略”, “从中省略”, “对话省略”, “自述省略”, “泛指省略”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承前省略”은 선행 문장의 어떤 성분이 후행 문장의 주어를 충당할 때 후행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는 것이다. 이는 복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기 예시의 생략은 “承前省略”에 해당한다(方梅, 1985, pp. 44-54).

용되었는데 이를 각각 전환과 인과로 보았다. 중국어 논설 텍스트에는 첨가 7회, 전환은 화제 전환 3회, 역접 4회, 인과는 원인-결과가 3회, 가정이 2회 사용되었다.

표 7
결속장치 '접속'의 사용 양상

분류		A	B	C	D	E	F	G	
첨가(7)	사용	4	6	6	5	6	4	3	
	누락	2	0	0	1	1	3	3	
	오류	1	1	1	1	0	0	1	
전환	화제 (3)	사용	1	0	3	2	3	3	3
		누락	2	3	0	0	0	0	0
		오류	0	0	0	1	0	0	0
	역접 (4)	사용	1	3	2	4	1	1	3
		누락	1	1	1	0	2	1	0
		오류	2	0	1	0	1	2	1
인과	인과 (3)	사용	2	3	2	3	3	3	3
		누락	1	0	0	0	0	1	0
		오류	0	0	1	0	0	0	0
	가정 (2)	사용	2	2	2	2	2	2	2
		누락	0	0	0	0	0	0	0
		오류	0	0	0	0	0	0	0

첨가의 경우, 학생들은 출발언어 텍스트에 사용된 접속의 결속장치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였고 소소한 오류를 범했다. 그중 학생 F, G는 누락이 절반 가까이 되었다.

<예시 11>

원문: (생략) 加强零工市场建设意义深远, 零工市场建设不能凌乱无章。此外, “零工”频遇劳动争议, 仍是一种普遍现象。

번역문: 그러므로 깃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이번 의견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깃 이코노미 시장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최근

이 초단기 노동자들의 노동 분쟁은 이미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 아니게 됐다. (학생 A의 번역)

<예시 11> 원문의 선행 문장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언급한 후에 새로운 노동 형태를 둘러싼 쟁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此外’를 통해 부가하였다. 그러나 학생 A는 이를 ‘최근’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최근’은 접속의 결속장치 중 ‘시간’으로 분류된다. 이는 오역일뿐 아니라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적 상황을 부가하는 결속을 약화시켰다.

전환의 결속장치로는 출발언어 텍스트에서 화제 전환과 역접 두 가지가 사용되었다. 화제 전환의 결속장치는 일부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번역문에서 잘 재현되었다. 역접에서는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누락이나 오류를 범했다. 다음 예시를 보자.

<예시 12>

원문: 比如, 以因群体施策, 实行分类认定管理。对于依靠脑力劳动和特殊技能获得较高收入、更愿意以自由职业身份存在的人群和行业, 可以参照民事合作关系予以认定; 而对于主要依靠体力劳动获取报酬、职业风险较高、平等协商能力较弱的群体, 如外卖骑手等, 应加强正面引导, 杜绝企业借民事合作之名, 行规避劳动关系法律适用之实。

번역문1: 예를 들면,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만들어 카테고리화 포지셔닝 관리를 하는 것이다. 지식 노동자들, 특수 전문직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싶은 고수입 종사자들은 민사협력관계로 인정을 해 주고, 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단기 노동자들이나 직업적 리스크가 큰 사람들, 협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민사협력을 구실로 삼아 노동관계 법률을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학생 B의 번역)

번역문2: 예를 들어 집단에 따라 대책을 실시하고 분류된 승인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정신노동과 특수 기술을 통해 고소득의 수입을 얻는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방식을 더 희망하는 그룹 및 업계에 대해서는 민사 협력 관계를 참고해 승인할 수 있다. 또한 배달 종사자와 같이 주로 육체 노동을 통해 수익을 벌고 직업 리스크가 비교적 크거나 평등하게 협상할 능력이 부족한 그룹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 방식의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민사 협력이라는 이름을 빌려 노사 관계의 법률적 적용

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학생 C의 번역)

<예시 12> 원문에는 다양한 노동자 그룹에 맞춘 정책 시행을 제안하고 이를 다시 지식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로 나누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对于’를 2회 사용해 각각의 노동자 그룹으로 화제를 한정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 B는 보조사 ‘-은’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두 노동자 그룹을 ‘대비’하는 효과는 있지만 화제로의 집중 효과는 떨어진다. 또한, 선행하는 주어부의 길이가 길어 가독성이 떨어지고 각각의 화제를 명확하게 전환하는 느낌을 주지 못했다. 반면, 학생 C는 ‘-에 대해서’라고 보다 명확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노동자 그룹을 둘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논지를 잘 드러냈다.

<예시 13>

원문: 而对于主要依靠体力劳动获取报酬、职业风险较高、平等协商能力较弱的群体, 如外卖骑手等, (생략)

번역문: 또한 배달 기사와 같이 체력적으로 힘들고 직업 위험도가 높으며 평등한 협의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이 민사 협력이라는 핑계로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단절해야 한다. (학생 F의 번역)

중국어 논설 텍스트에서 ‘而’은 모두 문두에 위치해 선행 문장과 상반되는 의미를 나타내며 총 6회 사용되었다. 중국어에서 ‘而’이 문두에 오는 경우 대부분 역접의 기능을 한다. <예시 13> 원문의 ‘而’ 역시 문두에 위치해 선행 문장에 언급된 지식 노동자와의 대조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학생 F는 이를 ‘또한’이라는 첨가의 결속장치로 번역해 오역을 범한 동시에 결속성을 떨어뜨렸다.

인과의 결속장치로는 출발언어 텍스트에 원인-결과, 가정 두 가지가 사용되었다. 중국어 논설 텍스트에서 원인-결과는 ‘由于’, ‘因此’, 가정은 ‘如果’로 유효적으로 사용되었다. 다음 예시를 보자.

<예시 14>

원문: 目前, “零工”与平台之间, 基本上是劳务关系。由于大都是“三无”人员(无固定工作时间、无固定工作场所、无固定工资性收入), 导致“以罚代管”现象比较普遍。

번역문: 그러나 현실 상황을 보면 ‘긱 워커’와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노무 관계를 맺고 있다. 대부분 ‘3무(정해진 근무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임금이 없음) 노동자’이기 때문에 ‘벌금형 관리’가 보편적으로 행해진다. (학생 D의 번역)

<예시 15>

원문: 如果是劳务关系, 则意味着双方是平等的民事合作关系, 其权利难以得到保障。

번역문: 만약 노무관계라면 플랫폼 노동자 혹은 긱 워커는 고용 업체와 동등한 민사 협력 관계이므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워진다. (학생 G의 번역)

중국어 텍스트 유형에 따라 접속 결속장치의 명시성에 차이가 있겠지만 중국어 논설 텍스트에서 인과는 접속사(连词)를 통해서 표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학생들은 텍스트 표층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결속장치를 정확하게 번역하였고, 출발언어 텍스트의 사용 횟수와도 일치했다.

4.2 어휘 층위

반복은 이미 출현한 선행 항목, 동의어, 상위어 등과 같이 어휘 항목을 반복하는 것이다. 중국어의 어휘적 결속에 대해 廖秋忠(1986), 黄国文(1988), 胡壮麟(1994) 등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였고, 이를 동형반복, 부분동형반복, 동의어/유의어, 상위어/하위어로 정리할 수 있다(윤유정, 2017, pp. 339-340).

중국어 논설 텍스트에는 ‘零工’이 키워드로 총 16회 사용되면서 어휘적 결속을 통해 텍스트의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零工经济’, ‘零工市场’, ‘打零工’과 같이 다른 어휘와 결합한 것도 포함된다. 그중 단독으로 긱 워커(Gig Worker)의 뜻으로 8회 사용된 ‘零工’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표 8
어휘적 결속의 사용 양상

학생	零工	사용양상
A	초단기노동자(5), 이틀(1), 노동자(2)	동형반복, 상위어, 지시
B	각 시장(1) 각 워커(1), 각(1), 각 노동자(5)	부분동형반복, 상위어
C	각 분야(1), 각 노동자(7)	동형반복, 상위어
D	각 워커(8)	동형반복
E	각 워커(3), 각 워커(5)	동형반복, 상위어
F	각 워커(7), 노동자(1)	동형반복, 상위어
G	각 워커(8)	동형반복

<표 8>을 보면 학생 C부터 G까지 출발언어 텍스트의 ‘零工’을 ‘각 워커’ 혹은 ‘각 노동자’로 동형반복함으로써 어휘적 결속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라는 상위어로 대체하기도 하였지만 일반화 정도가 커서 ‘임시’, ‘초단기’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했다. 반면, 학생 A, B는 번역의 정확성을 막론하고 동일한 키워드에 대해 일관된 번역을 유지하지 못해 어휘적 결속을 크게 떨어뜨렸다. 아래 예시를 보자.

<예시 16>

원문: “零工”频遇劳动争议, 仍是一种普遍现象。比如, “零工”到底是不是平台的员工, (생략)...而现实情况却是, 目前, “零工”与平台之间, 基本上是劳务关系。(생략)一方面, 平台从“零工”身上获取了不菲的抽成; (생략) 这种管理方式, 相当于把企业的经营风险, 转嫁到“零工”身上。更有甚者, 在服务过程中, 发生安全责任事故时, 本应由平台承担的赔偿责任, 也往往落到“零工”身上, 而相关平台则得以置身事外。

번역문: ‘각’ 시장에서는 노동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면, 각 워커가 플랫폼 노동자인지...(생략)...그러나 현재 ‘각(임시)’과 플랫폼 사이에는 노사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생략) 우선, 플랫폼이 각 노동자들에게 많은 커미션을 받는다. (생략) 플랫폼들은 이러한 관리 방식을 통해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각 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또한 서비스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보통은 깃 노동자가 그 책임을 떠안고 관련 플랫폼들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시 16> 원문에는 깃 워커의 의미로 단독 사용된 ‘零工’이 6회 출현한다. 학생 B는 이를 ‘깃 시장’, ‘깃 워커’, ‘깃’, ‘깃 노동자’로 다르게 번역하였다. 학생 B가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어휘 결속에 대한 메타 인지의 결여이다. 이는 졸업 시험이라는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텍스트를 접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어휘가 왜 중요하며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의 틀을 구성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둘째, 어휘 집합 (lexical set)으로 구성된 의미장(semantic field) 내 핵심 어휘에 대한 이해 결여이다. 의미장을 이해하고 번역하는 것은 텍스트의 맥락에서 화자가 선택한 의미를 이해하고 상위어와 하위어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Baker, 2018, pp. 24-27). ‘零工’이라는 의미장에는 경제적 형태로서의 ‘零工经济(깃 경제)’, 하위에 업종별 ‘零工市场(깃 시장)’, 다시 하위에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零工(깃 워커)’와 같이 계층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학생 B는 어휘 의미장 속의 상하위어 계층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5. 결론

본고는 Halliday와 Hasan(1976)의 결속이론을 토대로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의 결속구조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번역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결속기제에 대한 이론적 학습을 강화하여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번역 학습자가 출발언어 텍스트 표층에 드러난 결속기제를 포착할 수 있다면 해당 텍스트에 내포된 어휘와 문법적 혹은 기타 관계들의 망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번역 과정에 있는 번역사의 메타인지를 강화하여 출발언어 텍스트 맥락에 대한 오해 또는 오인을 방지함으로써 오역의 소지를 줄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출발언어 텍스트와 도착언어 텍스트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지식을

보강한다. 이러한 관점을 한국어와 중국어에 적용해 보면, 결속구조 형성 시 한국어가 동일 단어를 반복하는 반면 중국어는 유의어 또는 전체-부분 관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등 텍스트 결속성을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번역 학습자에게 번역 언어 쌍에 대한 결속 기제의 차이를 교육한다면 출발언어 텍스트의 맥락을 도착언어에 적합한 틀로 재구성해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번역 과제 평가 시 결속장치의 효과적 사용 여부를 정량평가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교육에서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은 학습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핵심이다. 따라서 번역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도착언어 규범에 맞는 결속장치를 적극적, 주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번역 과제 및 번역 시험 답안에 대한 정량적 평가 항목에 포함한다면 학습자의 결속기제에 대한 관심과 그 활용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번역 평가 항목 중 ‘충실성’의 하위 항목에 ‘결속장치 활용도’를 추가하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 데이터의 규모가 작다는 한계를 피할 수 없었다. 매년 졸업 시험으로 출제되는 텍스트상의 결속구조 차이, 응시 학생 수의 변동 그리고 이에 대한 정량화 문제 등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한 번역, 게다가 통번역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속구조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했다는 점은 분명 유의미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 교육 시 결속기제에 대한 이론적 학습 강화, 출발언어 텍스트와 도착언어 텍스트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지식 보강, 번역 과제 평가 시 결속장치 사용 여부의 정량평가 항목 설정 등에 관한 다양한 후속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번역 교육에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도착언어 규범에 부합하는 결속구조 형성을 도와 번역 학습자들이 출발언어 텍스트의 씨줄과 날줄을 유기적으로 직조하여 텍스트다운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Beaugrande, R., & Dressler, W.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gman.
- Halliday, M.A.K., &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n.
- 朱德熙. (2008[1982]). 语法讲义. 商务印书馆.
- 胡壮麟. (1994). 语篇的衔接与连贯.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차 자료>

- 고영근. (2022). 텍스트 과학 — 언어문학 통합이론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 김선영. (2008). 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설명적 텍스트 쓰기 교수·학습 방안[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김성경. (2009). 숙달도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의 문어텍스트 응결장치 사용 양상 연구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설텍스트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양훈. (2007). 신문텍스트 ‘논설’에 대한 텍스트분석. 독일언어문학, 36, 23-40.
- 김진웅, 주민재. (2013). 대학생 글쓰기에 나타나는 결속기제의 양상 — 연세대학교 1학년 즉시 쓰기 과제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7, 143-170.
- 김혜정. (2010). 설득적 텍스트 결속표지 교육 연구 — 중국인 중급·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박영순. (2004). 한국어 담화 텍스트론. 한국문화사.
- 박은숙. (2021). 결속구조 비교와 번역 — 중한텍스트 대조분석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71, 107-129.
- 박창희. (2013). 현대 국어의 생략 현상 연구[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백수진. (2003). 텍스트성과 번역전환 — 중한 번역. 중국어문학지, 13, 11-236.
- 서중훈. (2017). 글쓰기에 드러난 결속기제 사용 양상 고찰 — 갈래와 수준을 고려한 글쓰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65, 63-92.

- 연동숙. (2005). 중국어의 텍스트 결속적 접속표지 연구 — 한국어 텍스트와 의 대조를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37, 115-134.
- 윤유정. (2017).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텍스트 응결 장치 분석 — 서술묘사체 작문 텍스트를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67, 335-368.
- 이상원. (2003). Theme/Rheme 이론과 번역. *통역과 번역*, 5(1), 145-161.
- 이재승. (2003). 읽기와 쓰기 행위에서 결속구조의 의미와 지도. *국어교육*, 110, 5-112.
- 장영옥. (2013). 한·중 신문 보도기사의 텍스트언어학적 대비 연구[박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 전영옥. (2014). 신문 기사와 사설에 나타난 ‘이’와 ‘그’ 연구. *언어와 언어학*, 65, 163-196.
- 주회민. (2013). 한중 연설문 텍스트의 문법적 응결 장치 대조 연구(I). *한국어학*, 61, 339-367.
- 주회민, 장흥리. (2014). 한중 연설문 결속장치 대조 연구 생략장치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5(1), 315-334.
- Baker. M. (2018). 말 바꾸기: 번역학 입문 (곽은주, 최정아, 진실로, 김세정, 공역). 한신문화사.
- 廖秋忠. (1986). 现代汉语篇章中指同的表达 [Expressions of referential identity in Chinese discourse]. *中国语文*, 第2期, 88-96.
- 方梅. (1985). 关于复句中分句主语省略的问题 [복문 속 절의 주어 생략에 관한 문제]. *延边大学学报*, 1, 44-54.
- 张西流. (2022, July 13). 发展“零工经济”关键是保障零工权益. 人民融媒体. <https://baijiahao.baidu.com/s?id=1738207825476265539&wfr=spider&for=pc>

Analysis of translation cohesion: A focus on an op-ed piece

Seung-Hyuk Choi

Department of Korean-Chinese Advanced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Program (AITP),
Chung-ang University (Seoul)

Jung-Soon Lee (corresponding author, gina0207@daum.net)

Department of Korean-Chinese Advanced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Program (AITP),
Chung-ang University (Seou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use of cohesive devices by graduate students in a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program, utilizing Halliday and Hasan's (1976) framework of cohesion. The analysis draws upon student responses to an "op-ed translation" exam, which formed part of the 2022 graduation examination for the Department of Korean-Chines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t Chung Ang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study recommends that translator training programs place greater emphasis on deepening students'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cohesion mechanisms, expanding their contrastive linguistic knowledge of both source and target languages, and incorporating a quantitative evaluation of cohesive device usage in assignments. These steps would help students critically assess cohesion in source texts and produce more cohesive translations that align with target-language norms.

Keywords: Translation; translation training; text; cohesion; cohesion device

키워드: 번역학, 번역 교육, 텍스트, 결속성, 결속장치

최승혁(제1저자)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한중전공 강사

choi00joy@hanmail.net

이정순(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한중전공 부교수

gina0207@daum.net

논문 투고일: 2024년 8월 11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8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9월 9일

게재 확정일: 2024년 9월 14일